



수원대 대우교수

姜永善 박사

## “後學들이여, 어느 분야든 제1의 전문가되길...”

서울대교수·한국동물학회장·한국자연보존협회장·한국생물과학협회장·강릉대학장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생물과학분야에 기초를 다진 학술원회원 姜永善박사는 올해 일흔여덟(1917년 5월 23일생)의 나이를 이랑곳하지 않고 지금도 수원대 대우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하며 학문의 길을 흐트러짐이 없이 걷고 있다. 강박사는 이는 ‘젊어서 운동을 한 덕분’이라 했다.

대담 / 李光榮

〈한국일보 부국장 / 본지 편집위원〉

서울대교수, 강릉대학장 그리고 한국동물학회장 등 여러 학술단체를 이끌어온 학술원회원 강영선박사(78세)는 지금도 수원대 대우교수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48년간 교단 외길을 걸어온 강박사를 만나보았다.

■ 자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태어난 곳은 선천(姜洛周)의 고향인 충남 천원군 풍세면 지금의 독립기념관 부근입니다. 삼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난 나는 모친(許澄)이 서울분이어서 다섯살때 자하문밖으로 이사했습니다. 자하문 밖은 당시 경기도에 속해 있었는데 20분거리의 고개만 넘으면 청운동이어서 청운국민학교를 졸업(7회)했지요.

그리고 제2공립보통학교(경북고교)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는 당시 제1공립보통학교(경기고교)와 제2공립보통학교가 있었어요. 제1고보는 일본사람만

이 입학할 수 있었고 제2고보는 한국사람이 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서울에만도 제1고보외에도 서울고보와 용산고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인이 교육받는 것을 정책적으로 억제했습니다.

■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가 있으셨는지요.

당시 생물학은 지질학과 함께 박물학에서 취급했습니다. 내가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고바야시(小林) 선생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바야시 선생은 일본 동북대(東北大)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분이었는데 실력이 좋았을 뿐 아니라 잘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

때 멘델의 유전법칙에서 다윈의 진화론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멘델과 다윈같은 위대한 생물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제2고보를 졸업하신 후 수원고등농림학교에 입학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나는 제2고보를 12회로 졸업(1937)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서울대 농대) 수의축산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내가 수원고등농림학교를 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나는 일본에 유학할 만큼 가정형편이 넉넉치 못했습니다. 결국 국내에 있는 상급학교를 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생물학을 공부하기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당시 경성제대에는 생물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들어가니 이론보다 실습에 치중했어요. 나는 실습에

흥미를 잃어 초기엔 공부보다 투포환과 투햄머에 재미를 붙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나는 투포환과 투햄머 선수로 전국 5결안에 들어 갔지요.

■ 운동선수로도 대성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국민학교때부터 몸이 튼튼하지 못한 편이었는데 1학년말 진급을 앞두고 장티푸스에 걸린후 더욱 약해졌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몸을 튼튼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 복학한 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질이 있었는지 곧 투포환과 투햄머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전국학생대회에서 투포환으로 2등에 입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운동은 몸을 튼튼히 하려고 시작한 것이었고 목표는

위대한 생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북해도(北海道)제국대학 이학부 동물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동물학을 택하게 된 것은 수원고등농림학교에서 수의축산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축산학과 연관된 학문을 택하다 보니 자연 동물학이 된 셈입니다. 후에 유전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



▲휴전선(DMZ) 부근 인근지역의 생물학적 연구를 했던 강영선박사(左)는 이 연구가 한·미 공동연구의 효시가 되었다고 얘기한다.

게 된 것도 이에서 비롯되었지요. 당시 북해도제국대학엔 1년 선배로 서울대 교수를 지낸 손치무씨(86·지질학)와 서울여대 교수를 지낸 김삼순씨(86·식물학)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모두 만학이어서 나보다 연배가 높았지요. 1년위로 서울대 교수를 지낸 이민재씨(작고·생물학)가 계셨고 1년후배로 역시 서울대 교수를 지낸 정창희씨(지질학)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는지요.

1943년 9월 북해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집에 다니러 왔다가 중매로 한달만에 결혼했습니다. 내자(孔圭善)는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나와 성신여고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나는 결혼 즉시 곧 일본으로 돌아갔지요. 모

교에 조수(助手)자리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봉직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는지요.

경성(京城)제국대학 의학부에 조수자리가 났기 때문에 해방되기 직전인 1945년 2월 귀국했습니다. 내가 지금의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일하게 된 것은 동물학을 공부했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해방이 된 후 경성대학 의학부에서 생물학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경성대학은 예과에 이공계인 갑(甲)과 의학계인 을(乙)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나는 을류에서 동물학을, 북해도대학의 1년 선배인 선우기(鮮于起)교수(6.25때 월북)는 식물학을 가르쳤습니다. 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로 자리를 옮긴 것은 1946년의 일입니다. 나는 서울대 문리대에 생물학과를 만드는데 창립위원 중의 한사람으로 일을 했습니다.

■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의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회 졸업생은 1명(정인조)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갔고, 2회 졸업생은 2명으로 6.25직전 월북했다는 소식만 있고, 3회 졸업생은 2명으로 김훈수씨(전 서울대교수·학술원회원)와 김은수씨(재미 교수)였지요. 4회 졸업생은 8명이 배출됐는데 이중에 서울대 교수를 지낸 홍순우(작고)와 정영호(작고)·성대교수를 지낸 박상운·한양대 교수를 지낸 백용균씨 등이 있습니다. 5회 졸업생은 6.25로 여자 2명만이 배출됐는데 소식이 끊겼고, 6회 졸업생은 서울대 총장과 교육부장관을 지낸 조완규씨 1명입니다.

■교단에서 수많은 후학도를 길러내셨고

학문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까지만해도 연구비를 마련하 기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1959년부터 원자력연구소의 생물 분과 설립위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암의 생성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위한 4천달러의 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지금은 4천달러가 별것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나는 이 돈으로 1963년부터 3년간 암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좋아 다시 3년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6년간 염색체 변이와 DNA대사 양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동위원소를 이용한 방사선자동사진법 (autoradiography)을 사용해서 암생성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방사선자동 사진법은 당시로서는 첨단기법이었는데 나는 1960년 미국에 유학(Worcester Foundation for Experimental Biology)을 할때 익혀둔 것이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1966년부터 1968년까지는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와 공동으로 '휴전선(DMZ)인근지역의 생물학적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학자 32명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였지요. 내가 이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학술원 회원이자 동물학자인 쿠리치 박사와의 친분 덕분이었습니다. 연구는 (1)서부전선(판문점부근) (2)중부지역(철원이북) (3)중동부지역(편지불부근) (4)동부지역(향로봉일대)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이 계획은 애초 5개년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신조사건으로 2년만에 중단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는 한·미공동연구의 효시가 됐습니다.

DMZ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중단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아쉬움이 큼니다. 지구상에 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을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고 오랫동안 내버려 둔 곳은 DMZ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많은 생태학자들이 DMZ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DMZ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1970년대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리며 DMZ를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북한당국에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미 북으로 금강산과 남으로 설악산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만들어 연간 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릴 계획을 세운바 있었지요. 요즘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는 1965년부터 1974년까지 국제생물과학연구프로그램 (IBP = International Biology Program)의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 국제적인 환경문제를 다루는 계획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1975년부터 1984년까지 10년간 인류유전학에 관한 한·일공동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1)효소결핍유전과 (2)혈액형의 변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병을 조사해서 중국과 일본사람들의 유전병형태와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연구결과 대마도 사람들은 유전적인 면에서 일본사람과 판이했으며 한국사람과 닮은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논문수는 몇편 정도 됩니까?

인쇄된 것만 1백60여편에 이릅니다. 구두로 발표한 것을 합하면 1백80여편이 될 것입니다.

■후학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

시다면...

나는 서울대에서 35년, 정년퇴임을 앞두고 강릉대학장으로 3년반, 그리고 수원대 대우교수로 현재 10년을 봉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기회있을 때마다 젊은 교수나 학생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일단 그 길에 들어섰으면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는 어느 대학의 누구에게 물어보라 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망을 가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내가 대학 재학당시 초대총장이었던 미국인 크라크박사의 고별사에서 들은 것으로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북해도제국대학을 설립하며 원대한 계획으로 초대총장에 미국인을 임명했습니다. 크라크총장은 고별사에서 "젊은이들이여! 대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폭넓게 학문의 기초를 닦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인기학과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문은 유행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초를 잘 다져 놓으면 이같은 유행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학문을 잘 다져 놓으면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독창성과 창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학술원상(1963), 과학기술상(1970), 국민훈장 동백장(1971), 하은 생물학상(1972), 국민훈장 모란장(1982) 등 그가 받은 많은 상은 강박사가 반세기를 후배양성과 연구에 바쳐 온 족적의 일부이다. 강박사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 318의 5에서 첫부인을 사별한후 1976년 재혼한 韓在卿 여사와 단출히 살고 있다. 강박사는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 강릉대 산업미술학과 姜泰昊교수가 2남이다. ㉞